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보도	배포일시	2026.08.14.(금)
담당자	박해철 의원실	연락처	02-6788-7181
		e-mail	new_ansan@naver.com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폭염 속 온열질환 잇따른 쿠팡 송파1캠프 현장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휴게시설 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야간 상·하차·분류 작업현장 직접 살펴... 온열질환 예방물품도 전달
- 산재예방TF “폭염 속 노동자 안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 점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간사 박해철)는 13일(목) 저녁 쿠팡로지 스틱스서비스(CLS) 송파1캠프를 찾아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쿠팡 송파1캠프 배송현장의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재해예방TF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의원, 염태영 의원,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TF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감독관들과 함께 송파1 캠프의 간선 상하차 작업현장, 휴게시설, 배송적재 작업구역 등을 돌아보며 야간 작업환경과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살폈다.

특히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온도 및 습도 측정 여부, 휴게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산업재해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류·배송 노동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전과 달리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쿠팡 본사 차원에서 좀 더 작업현장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했다.

산업재해예방TF 간사 박해철 의원은 “물류센터는 상·하차와 분류 등 고강도 작업이 계속되고 야간에도 노동이 이어지는 만큼 폭염에 더욱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현장”이라며, “오늘 직접 확인해보니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폭염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게시, 선풍기 미작동 등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앞으로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정부와 소통하여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끝

<첨부> 현장사진 2P

